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담당자	임현아
이메일	lha8170@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58

보 도 자 료

홍길동과 용가리, 뉴욕에 가다! **: 뉴욕 링컨센터에서 1960년대 한국영화 황금기를** **이끌었던 한국영화 24편 상영**

9월 1일부터 17일 간 '한국영화 황금기 1960년대 특별전' 개최
 김기영, 이만희 등 거장의 대표작 및 뮤지컬, 애니, 호러 등 다양한 장르영화 선보여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4K 복원판 <돌아오지 않는 해병> 해외 최초 상영



▲ '한국영화 황금기 1960년대 특별전' 배너 이미지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뉴욕한국문화원과 공동주최로 오는 9월 1일(금)부터 17일까지 필름 앳 링컨센터(미국 뉴욕)에서 '한국영화 황금기 1960년대 특별전(Korean Cinema's Golden Decade: The 1960s)'을 개최한다. 1960년대 한국영화를 조명한 해외 개최 최대 규모의 이번 특별전에서는 김기영, 이만희, 김수용 감독 등 1960년대 한국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감독들의 대표작과 다양한 장르영화 2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한국영상자료원과 뉴욕한국문화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특별전은 필름 앳 링컨센터와 써브웨이 시네마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김기영 감독의 1960년작 <하녀>부터 신상옥 감독의 1968년작 <내시>까지 총 24편의 한국 고전영화가 상영되며, “한국영화의 황금기”로 불리는 1960년대 한국영화의 흐름과 경향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뉴욕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 1960년대 대표 감독들의 마스터피스 상영

이번 특별전에서는 김기영, 김수용, 이만희, 유현목 감독 등 1960년대 한국영화 황금기를 대표하는 감독들의 대표작을 한 자리에 모았다. 해외에서도 널리 인정받은 김기영 감독의 <하녀>(1960)와 <고려장>(1963)을 비롯, 김수용 감독의 모더니즘 대표작 <안개>(1967)와 여성들의 삶을 중심으로 다룬 <갯마을>(1965), <산불>(1967), 유현목 감독의 한국적 네오리얼리즘 명작 <오발탄>(1961)과 실험적으로 꿈의 세계를 탐구하는 <춘몽>(1965)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1960년대 활동한 여성 감독 홍은원의 현존하는 유일한 작품인 <여판사>(1962)도 상영하여 의미를 더한다. 특별히 9월 2일 <오발탄> 상영 후에는 영화평론가 달시 파켓, 써브웨이 시네마의 고란 토팔로빅 프로그래머, 한국영상자료원 최영진 프로그래머의 대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려장>의 한 장면



▲<안개>의 한 장면

□ 1960년대에 개봉한 다양한 장르의 한국 고전 상영

이번 특별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은 장르적 다양성이다. 액션, 스릴러, 호러, 뮤지컬, 괴수, 애니메이션 등 당시 한국영화의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특별전에 포함된다. 액션영화의 거장 정창화 감독의 국제 첩보영화 <순간은 영원히>(1966)와 무협영화 <황혼의 검객>(1967)을 포함, 이만희 감독의 1964년작 <마의 계단>(스릴러), 이용민 감독의 1965년작 <살인마>(호러), 한형모 감독의 1966년작 <워커힐에서 만납시다>(뮤지컬), 1967년에 개봉한 <대괴수 용가리>와 <우주괴인 왕마귀>, 우리나라 첫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홍길동>(1967)과 속편 <호피와 차돌바위>(1967)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통해 1960년대 한국영화를 만날 수 있다. 특별히, 사운드가 유실된 <순간은 영원히>는 현지 DJ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가미하여 색다른 영화적 체험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커힐에서 만납시다>의 한 장면



▲<대괴수 용가리>의 한 장면

□ <돌아오지 않는 해병> 4K 복원판, 해외 최초 공개

아울러,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영상자료원이 4K 디지털 복원한 이만희 감독의 1963년작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이번 특별전을 통해 해외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특별히 9월 3일 <돌아오지 않는 해병> 상영 후에는 한국영상자료원 최영진 프로그래머가 영화의 제작배경과 미국 수출사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필름 앳 링컨센터(전 링컨센터 필름소사이어티)는 뉴욕의 대표적인 시네마테크 극장으로 뉴욕영화제를 비롯해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뉴욕한국문화원이 주최하고 써브웨이 시네마와 공동 주관하여 '끊임없는 발명: 한국 신영화, 1996-2003 (Relentless Invention: New Korean Cinema, 1996-2003)'을 통해 북미 최대 규모의 뉴 코리안 시네마 회고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전의 자세한 상영 일정은 필름 앳 링컨센터 홈페이지(www.filmlin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별전 주관 및 주최 기관 로고

<한국영화 황금기 1960년대 특별전>

- 기간: 2023년 9월 1일(금) ~ 17일(일)
- 장소: 필름 앳 링컨센터(월터 리드 극장)(미국 뉴욕)
- 상영작: <하녀>(김기영, 1960) 등 24편
- 특별전 홈페이지: <https://www.filmlinc.org/series/korean-cinemas-golden-decade-the-1960s/>
- 특별전 트레일러: <https://www.youtube.com/watch?v=DhjOUIbYx8E>

[참고자료] 한국영화 황금기 1960년대 특별전 세부 상영작품

- 행사명 : 한국영화 황금기 1960년대 특별전(Korean Cinema's Golden Decade: The 1960s)
- 기간 : 2023년 9월 1일(금) ~ 17일(일)
- 장소 : 필름 앳 링컨센터(월터 리드 극장)(미국 뉴욕)
- 특별전 홈페이지: <https://www.filmlinc.org/series/korean-cinemas-golden-decade-the-1960s/>
- 특별전 트레일러: <https://www.youtube.com/watch?v=DhjOUIbYx8E>
- 상영작 : <하녀>(김기영, 1960) 등 24편

구분	작품명	감독	제작년도	비고
1	하녀	김기영	1960	
2	오발탄	유현목	1961	
3	마부	강대진	1961	
4	여판사	홍은원	1962	
5	고려장	김기영	1963	
6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만희	1963	
7	마의 계단	이만희	1964	
8	빨간 마후라	신상옥	1964	
9	맨발의 청춘	김기덕	1964	
10	춘몽	유현목	1965	
11	살인마	이용민	1965	
12	갯마을	김수용	1965	
13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한형모	1966	
14	순간은 영원히	정창화	1966	
15	대폭군	임원식	1966	
16	대괴수 용가리	김기덕	1967	
17	우주괴인 왕마귀	권혁진	1967	
18	홍길동	신동헌	1967	
19	호피와 차돌바위	신동헌	1967	
20	안개	김수용	1967	
21	산불	김수용	1967	
22	황혼의 검객	정창화	1967	
23	휴일	이만희	1968	
24	내시	신상옥	1968	